충장축제 '소망터널' '제6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오는 13일부터 엿새 동안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5일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금남근린공원에 조성된 '소망터널'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쉽게 뚫리는' 농협 인터넷뱅킹

농협 국감 "의원실서도 간단히 해킹 … 확실한 보안대책 절실"

김우남 의원, 본보 보도 '거액인출사고' 사례 들며 시연

광주의 한 사업가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액이 인출된 사건〈광주일보 8월 11일자 6면〉과 관련, 농협의 인터넷뱅킹 보안시스템이 허술해 예금자들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수위)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원실 자체 실험 결과 간단한 해킹 기술로 농협이 자신하던 방어프로그램인 OTP(One Time Password)를 뚫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웹상에서 영화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해커들이 바이러스를 무작위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감염시켜 잠입한 뒤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시도할 때 OTP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유롭게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사례로 지난 1일 국회 농수위 회의장에서 인터넷 보안 전문가 등과 가진 '농협 인터넷뱅킹 해킹 실험'을 소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농협 인터넷뱅킹 해킹을 시도했는데 할 때마다 비교적 쉽게 해킹이 됐다"며 "의원실 직원 등의 계좌에서 돈이 실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오는 23일 농협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광주일보가 단독 보도한 광주지역 농협 인터넷뱅킹 유출사고를 실제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새벽 2시~6시25분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4천130만원이 유출된 사건이 광주에서 벌어졌으며, 계좌 주인도 모르는 현금 이체가 새벽에 진행된 것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이 불법으로 자금이체(해킹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의 인터넷뱅킹 보안시스템은 1단계 비밀번호, 2단계 보안카드, 3단계 OTP 카드를 보안등급별로 적용해 해킹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총 43억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농협은 지난 3년간 자체 금융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중삼중으로 43억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인터넷 해킹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농민을 비롯한 전국 농협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보안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OTP는 매번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이며, 공인인증서와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 고객 정보가 모두 유출돼 해커가 OTP값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1분 이내 공격해야 하므로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왔다.

광주에서 발생한 인터넷뱅킹 거액 인출사건을 수사해온 광주동부경찰은 적어도 2인 이상의 조직이 치밀하게 준비,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이체한 것으로 보고 유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광주에서 발생한 농협인터넷뱅킹 유출사고는 전문 해커들의 소행일 확률이 크지만 수법이 날로 진화돼 추적이 쉽지 않다"며 "농협 이외에 국내 2~3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해킹 추정 사고도 있으나 수사 진행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0대 女 새벽 금호동서 괴한에 납치 … 카드 뺏기고 탈출

범인 100만원 인출 도주

50대 여성이 귀가 중에 괴한에게 납치됐다 1시간30분여 만에 가까스로 탈출했다.

5일 새벽 5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J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L(여·55)씨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괴한 1명에게 양 손목을 청색 테이프로 결박당한 뒤 L씨의 고급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져 납치됐다.

납치범은 L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곧바로 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청색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차 트렁크에 감금돼 있던 L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곡성휴게소에서 납치범이 잠시 차량을 비운 사이 탈출했다.

납치범은 L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 맞은편 곡성 휴게소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L씨의 차를 담양~고창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키 170㎝에 평범한 체격과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달아난 20~30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시 미궁' 광주 세무공무원 피살사건 진실은?

용의자 4명 사건 한달 여만에 검거

물증 없이 자백만 … '강압수사' 논란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세무 공무원 피살사건' 용의자 4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붙잡혔다. 주범으로 지목된 최모(당시 15세)군은 가출 후 절도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갓 풀려난 상태였고, 공범 박모(20·지적장애 3급)·노모(21)·이모(19)씨 등 3명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해왔다.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들 4명은 집에서 잠을 자던 세무공무원 김모(31)씨를 살해하고, 김씨의 형(35)을 다치게 한 뒤 상품권 등 20여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부경찰은 사건 발생 36일 만에 이들 4인조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광주국세청장은 경찰의 개가(凱歌)에 경찰서를 직접 방문,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강도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최군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군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강압수사 논란…증거 있었나?=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0m 떨어진 친구 C(20)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박씨가 사건 발생 직후 발길을 끊은 점을 이상히 여기고 수사한 끝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를 찾아냈다.

당시 박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나흘 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난 최군은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피해품인 상품권 등은 찾아내지 못했다. 담당 경찰은 "당시 최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데다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 검증 당일 범행 장소를 알아서 찾아갈 정도였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조사가 이뤄져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 이들의 범행을 2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무죄' 선고=고법은 박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도치사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5~6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분석해 당시 박씨와 이씨는 나주의 한 PC게임방에, 노씨는 서울의 한 PC게임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3명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자백한 것은 I.Q 64~71 정도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회유 등을 못 이겨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수사=검찰은 인터넷 접속기록 등 알리바이 신빙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6개월여가 지난데다 추가 물증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미 한 차례 이상 수사를 거쳐 향후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래방 불법영업 협박 돈 뜯어

남부경찰 30대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5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 돈을 뜯어낸 정모(36)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도우미를 때려 도망가게 한 뒤, 업주 A(여·54)씨에게 "도우미에게 2차 비용으로 20만원이나 줬는데 도망갔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뜯어내는 것을 비롯한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5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미리 명함을 돌리면서 신고를 당부한 경찰의 사전 예방조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운찬 〈7919〉 김종두

화물선 선원 '훗줄' 맞아 숨져

4일 밤 11시20분께 광양컨테이너부두에 정박해 있던 8만t급 그리스 선적 M호 갑판 위에서 필리핀인 A(2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해경은 "선박과 육지를 잇는 '훗줄'을 감던 중 줄에 맞았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가짜 여성'에 낚여 돈 뜯긴 남성들

쌍나팔

○…인터넷상에서 여성인 척하며 "사귀자"고 접근해 남성 18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

○…서울도봉경찰은 5일 이메일을 통해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A(24)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A씨는 지난해 5월~8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천명의 20~30대 남성들에게 "23세 여성인데 이메일로 이성교제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화답한 남성 중 8~9차례 이메일이 오간 18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해 돈을 송금받은 혐의.

○…조사결과 A씨는 "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대포 통장으로 1명당 10만~50만원의 돈을 입금받았다는 것. /연합뉴스